WF16
3 - JUL 31
Copy 1963
06-0730

허 능택 그림

화살

1962년 12월호 (161)

안 창수 그림

승리로 들끓는 영광의 한 해여!

박 팔 양

6 2년아 그대 력사의 페지 우에
눈부신 공적을 뚜렷이 기록하라
잊을 수 없는 감격의 한 해여
승리로 들끓는 영광의 한 해여!

대안과 숙천의 불'길이 온 나라에 퍼져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알곡 고지에도 직물 고지에도
승리의 함성 메아리친 한 해여!

우리 그대와 함께 달렸노라
낮에도 밤에도 시각을 다투며
여섯 봉우리 우에 붉은 기폭을
높이높이 휘날릴 오늘을 위하여

왕가물도 이기며 물'길을 끓어
논밭으로 생명수 흐르게 하고
긴긴 장마엔 비'바람 속에서
더 높이 동뚝을 쌓아 올렸노라

이 강산에 무진장한 석회석에서
비날론 솜과 천이 쏟아져 나오고
5색 령롱한 염화 비닐 제품들이
우리네 살림에 빛을 뿌려 주도록

보람찬 투쟁으로 흘러간 한 해여
사회주의 조국 건설의 노래 속에서
우리의 지상락원 이룩되여 가나니
영광의 무지개 이 강산에 비꼈어라

자랑스러워라 우리 겨레 한결같이
당과 수령을 지성으로 받들면서
대의원 선거에도 한 사람 빠짐 없이
모두가 찬성 투표로 호응하였고

세계는 다시금 황금의 예술로
월계관을 우리 나라에 바쳤나니
이 자랑 이 영예 비길데 없어라
이 기쁨 이 감격 잊을길 없어라

6 2년아 우리 로동당에 영광을
김 일성 원수님께 영광을 드리자!
우리를 찬란한 승리에로 이끄신
그분을 따라 새 승리에로 달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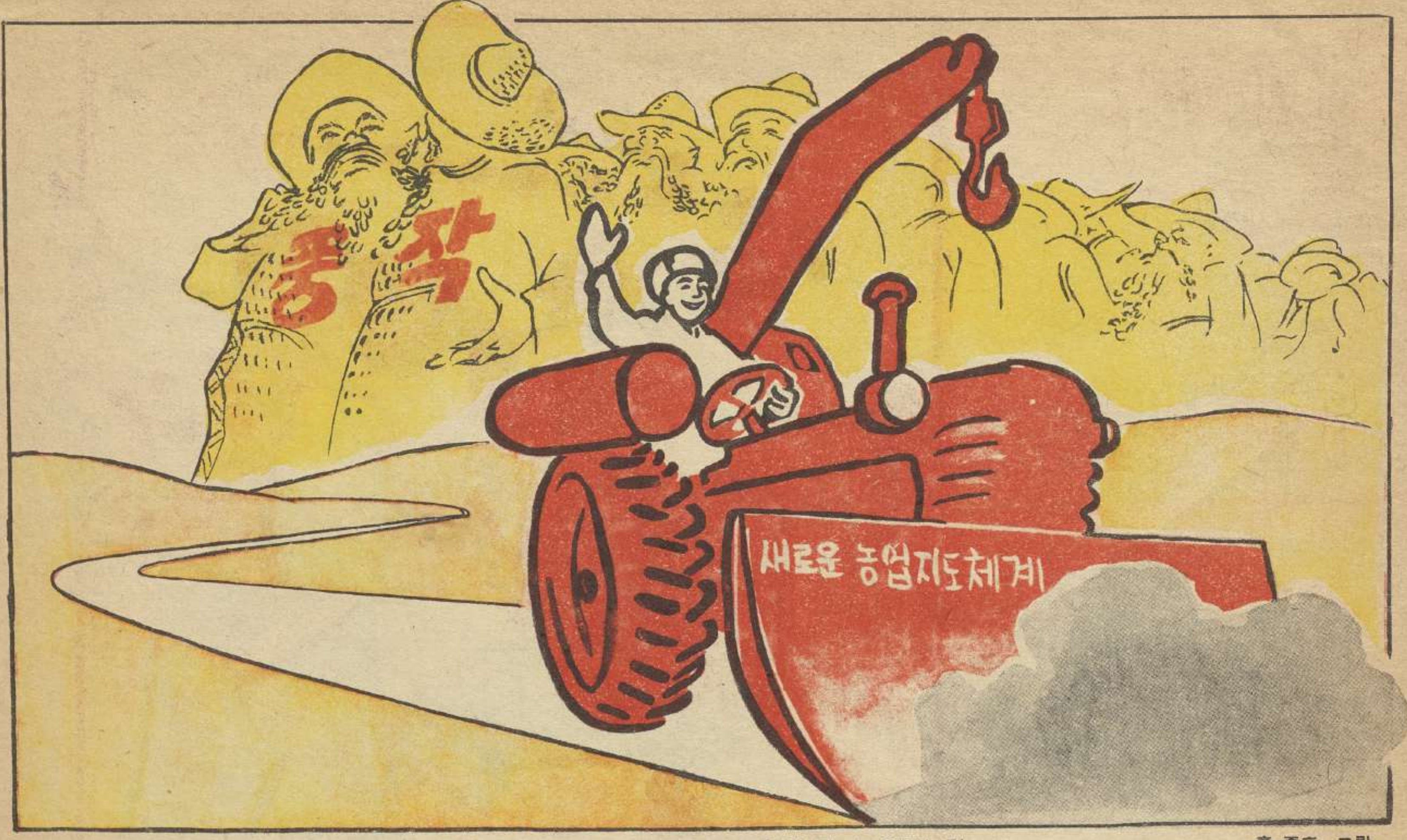
일곱해 계획을 앞당겨 이룩하며
우리 락원을 활짝 꽃 피게 하자
미제 승냥이떼 남에서 몰아내고
통일 조국의 억년 행복을 누리자!

~1962, 12~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홍 종호 그림

새로운 길을 따라



풍작—훌륭한 길이 생겼으니 더 많이 갈 수 있겠는걸

홍 종호 그림

재담

새해에도 대풍을!

박 승 호

갑 여보게!
을 응?
갑 자네 한 번 들어 보겠나?
을 아니, 뭣을 들어 보란 말인가?
갑 아, 500만 톤 황금 고지 말일세.
을 원 사람두! 500만 톤 황금 고지를 듣다니?
갑 허허허. 그런 게 아니라 황금 고지 우에서 주고 받은 얘기 말일세.
을 그럼 그렇겠지. 그런데 누가 어떤 얘기를 주고 받던가?
갑 땅하고 물하고 얘기를 재미나게 주고 받더란 말이야.
을 뭐? 땅하고 물이?
갑 글쎄 내 얘기를 들어 보라니까.

× ×

갑 자, 물 동무! 이리 좀 다가앉으시지요.
을 참말 땅 동무하고 이렇게 500만 톤 황금 고지 우에 같이 앉아 얘기를 주고 받게 되니 새삼스럽게 어제'일이 생각 나는군요.
갑 참말 그렇군요. 아, 올해에는 왕가물에 잇달아 석 달 남아나 긴 장마가 계속되였고 네 번이나 큰 홍수가 났지, 거기다가 랭해, 병충해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지, 아닌 게 아니라 일대 시련을 겪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을 거, 나를 무척 미워했겠습니다 허허허.
갑 허허허. 그렇지만 나는 그 때도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알곡을 키워 냈지요. 그래서 알곡을 지난 해보다 작게 낳은 것이 아니라 도리여 500 만 톤을 넘게 낳았답니다. 에헴!
을 아닌게 아니라 큰기침을 하게 됐습니다그려. 허허허 .
갑 이게 다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가 우월하구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공고하고 특히 관개 체계와 치산 치수 시설의 위력을 뚜렷이 시위한 것이지요.
을 참말 이렇게 하늘 높이 솟은 고지 우에서 앞을 내다 보니 훤히 트인 것이 아주 장쾌하군요.
갑 그래서 나 혼자 바라 보기엔 아깝고 해서 동무를 청하여 같이 구경도 할 겸 래년 일도 의논하자는 겁니다.
을 옳지. 래년에 더 많은 알곡을 낳을 방도를 의논하시잔 말이지요?
갑 그렇지요. 래년에는 알곡 500만 톤 고지를 견지하면서 벼 수확을 더욱 증가시켜 알곡 생산의 질적 구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을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1964년에 가서 벼만 300만 톤 이상 생산한다는 말씀이죠.
갑 예. 그러자면 우선 새해에는 동무가 나다닐 길을 더 많이 내야지요.
을 내가 나다닐 길이라니요?
갑 아, 관개 공사를 더 많이 해서 간 곳마다 수로를 내고 지선과 물'도랑을 뽑아야 나한테 생명수를 더 많이 줄 게 아닙니까? 지금부터 1964년 봄까지에만도 논 면적을 6만 정보나 더 확장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명년엔 15만 정보, 1964년에는 30만 정보의 밭에 밭벼를 심게 되는데 기존 양수 시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모든 뜨락또르에 양수기를 달아 2단 3단 양수까지 해서라도 밭벼 재배지를 관개하게 된답니다.
을 거, 지금 있는 관개 수로만도 굉장한데 거기다가 또 더 많이 내면 그야말로 논밭을 그물로 덮듯이 할 작정이군요. 허허허. 그런데 나는 여름에는 심술을 부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뚝 떼줄 수 없을가요?
갑 아니, 심술이라니요?
을 아, 다 큰 곡식 포기를 쓸어 넘어뜨리고 달아 나는 심술 말입니다.
갑 념려 마십시오. 새해에는 치산 치수 사업으로 철통 같은 제방이 간 곳마다 막아서니 그런 심술을 부리고 싶어야 못 부릴 겁니다. 허허허.
을 그렇다면 나도 마음이 놓이는군요. 그런데 새해에 더 많은 알곡을 낳자면 우선 뭣보다도 땅 동무의 몸이 건강해야겠습니다.
갑 아무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나를 종합적 진찰을 하시더니 아주 구체적인 처방을 떼 주시더군요.
을 어떤 처방을요?
갑 우선 보약을 든든히 먹여 주시겠다면서 화약 비료라는 약도 더 많이 주고 자급 비료라는 약도 많이 먹여 주겠다지요.
을 거,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잡수시는군요.
갑 글쎄 정당 50 톤씩 자급 비료를 먹여 주겠다니 살이 피둥피둥 찌게 됐지요.
을 그렇게 너무 비대해지면 쓸 데 없는 수염도 많이 나지 않겠어요?
갑 허허허. 그래서 처방에는 벌써 피씨피라는 살초제로 수염을 몽땅 없애 치우겠다고 했더군요.
을 참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처방이군요.
갑 어디 그 뿐인가요. 전문 의사들을 내보내서 팔, 다리, 허리, 어깨를 골고루 진찰하고는 거기에 알맞게 카바이드재, 소석회, 광재 같은 약을 써 주겠다는군요.
을 거, 그쯤 하게 되면 건강은 아예 문제 없겠습니다그려.
갑 글쎄 또 거기다가 기계화 작업 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농기계의 리용률을 계속 높이면서 기경 파종으로부터 추수 탈곡에 이르는 종합적 기계화를 추진시키고 다수확 우량 종자를 주시겠다니 막 기운이 절로 나는군요. 허허허.
을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시지 말고 아무쪼록 몸 조심하셔야지요.
갑 글쎄 내 몸은 념려 마시고 동무나 힘껏 협력해 주십시오.
을 글쎄 내 걱정은 마시고 동무나 어서 살이 더 찌시라니까요.

× ×

갑 어때?
을 여보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기운이 막 나는데.
갑 아무렴, 새해에도 대풍을 가져 오기 위해 영농 준비를 더 잘 해보세!

붉은 수첩

(무던이의 수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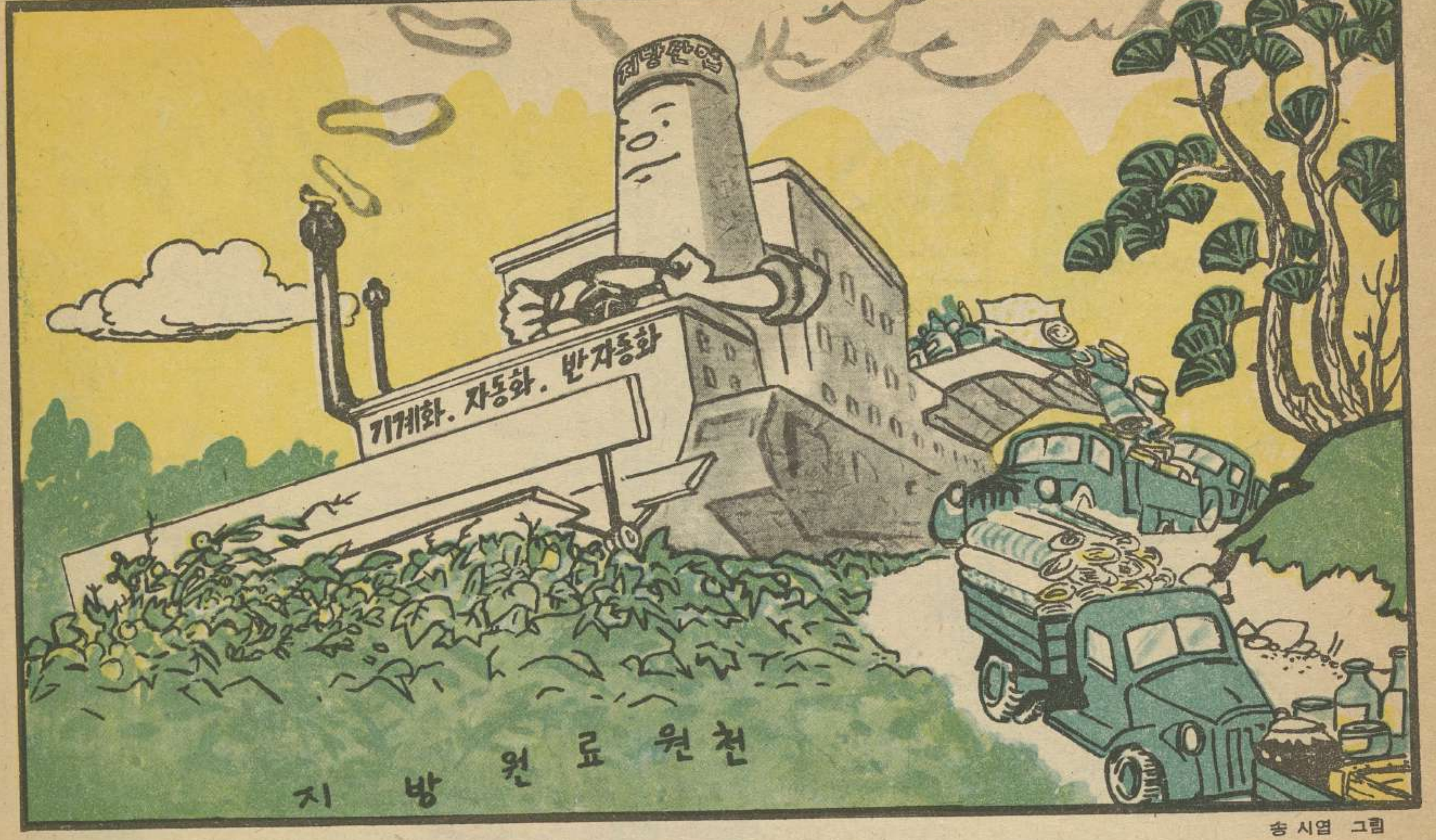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풍작의 근원

—래년에도 이렇게 자래웁시다

조 명식 그림

황금산의 수확물



송 시엽 그림

1인 3억에 대한 이야기

광덕 협동 농장 영화 보급원 김 부길 동무는 몹시 마음이 초조해졌다.

오늘 영화 조직을 담당한 그는 오후 8시 반에는 틀림 없이 영화를 시작하기로 농장원들과 약속했었다. 그런데 영화차만 관리 위원회 마당에 덩그렇게 놓여 있고 영사기를 돌릴 영사 기사는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 위원회 마당에는 어느새 농장원들이 가득히 모여 들었다.

김 부길 동무는 곧 민청원 한 동무를 보내여 먼저 온 운전수 동무라도 찾아 보라고 하였다.

한 농장원의 집에서 재봉침을 고쳐 주고 있던 운전수 리 한익 동무가 뛰여 왔을 때 영화 보급원 김 부길 동무는 마음이 조급했던 나머지…

《좀 기달려서 영사 기사까지 태우고 올게지 왜 혼자만 와서 남의 속을 태워 주오?》 자못 짜증어린 어조였다.

그런데도 운전수 리 한익 동무는 《시간이 되면 돌립시다그려, 자동차 바퀴도 돌리는 데 영사기라고 못 돌리겠소?》 하고 너털 웃음까지 터뜨렸다.

리 한익 동무는 곧 자동차에서 영사기를 내리여 익숙한 솜씨로 영사 준비를 하였다.

영화 보급원 김 부길 동무는 혹시나 지금이라도 영사 기사가 올가 하여 큰길 쪽을 계속 바라다 보면서 전화 독촉을 할 양으로 리 당 위원회로 갔다.

8시 반 관리 위원회 일'군들도 나와 영사막 앞에 자리잡고 앉았다.

리 한익 동무는 기다리기나 한듯이 마당의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기사 동무 왔소?》 하는 김 부길 동무의 목소리가 들리자 리 한익 동무는 목소리를 지어 《예, 늦어서 미안합니다. 곧 시작하랍니까?》 하며 빙그레 웃었다.

《선전원 동무도 같이 왔나요?》.

《예, 왔습니다》.

여전히 리 한익 동무의 딴 목소리였다.

이 날 상영한 영화는 조선 예술 영화 《새 봄》이였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영화 보급원 동무가 영사기 있는 데로 왔다.

《아니, 기사 동무와 선전원 동무는 또 어디로 갔소?》.

《왜 그러오?》. 시치미를 뗀 리 한익 동무가 묻는 말에 《우리 민청원 동무들이 이 영화에 대한 감상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선전원이 있어야지요 》.

《거… 내가 참석하면 안 되나요? 아무러면 밥만 먹으라는 입이겠소? 선전원 동무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대신합시다그려》.

이렇게 되여 리 한익 동무는 감상 모임까지 훌륭히 지도했다.

영화 《새 봄》이 가지는 사상 예술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을 때 전체 민청원들은 이 영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에서 힘찬 고무를 받아 래년도 영농 준비를 더 잘할 자기들의 결의를 다지는 토론들을 하였다.

감상 모임이 끝난 후에야 리 한익 동무는 비로소 자기가 선전원, 영사 기사, 운전수를 겸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다.

《영화 〈새 봄〉의 주인공 철삼을 보시오. 농촌 기술 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소.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 뛰려면 1인 3 역만으로 모자라지요.

그러길래 당은 우리 전체 근로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 데 대해 호소하지 않았소》.

리 한익 동무의 이 말을 듣는 농장 민청원들은 마음에 무엇인지 찌르릉 하는 것을 느꼈다.

김 수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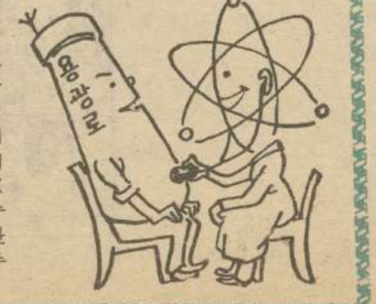
과학지식

방사성 동위 원소

자연의 모든 물질은 화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례를 들어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들로 되여 있다. 자연계의 모든 물질들은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원소들로 되여 있는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만 하여도 102개나 된다. 그런데 같은 원소에도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이 있다. 례를 들어 수소라는 원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소보다 2 배나 더 무거운 중수소와 3배나 더 무거운 초중수소가 있다. 이와 같은 원소로서 무게가 서로 다른 원소들을 동위 원소 라고 한다.

이 원소들 중에 저절로 붕괴되여 다른 원소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부르는 방사선 (빛의 일종)을 내게 된다. 이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을 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 널리 리용할 수 있다. 용광로에서 광석을 녹일 때 방사성 동위 원소를 쓰면 직접 용광로 안을 보지 않고도 로 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에서는 방사선을 생물체의 기능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데 리용하며 또한 방사성 동위 원소를 리용하여 만든 비료를 쓰면 벼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료 성분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시비 체계를 세울 수 있다. 그 외에도 보건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광범히 리용할 수 있다.

우리당 제 4 차 대회에서는 이 부문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광범히 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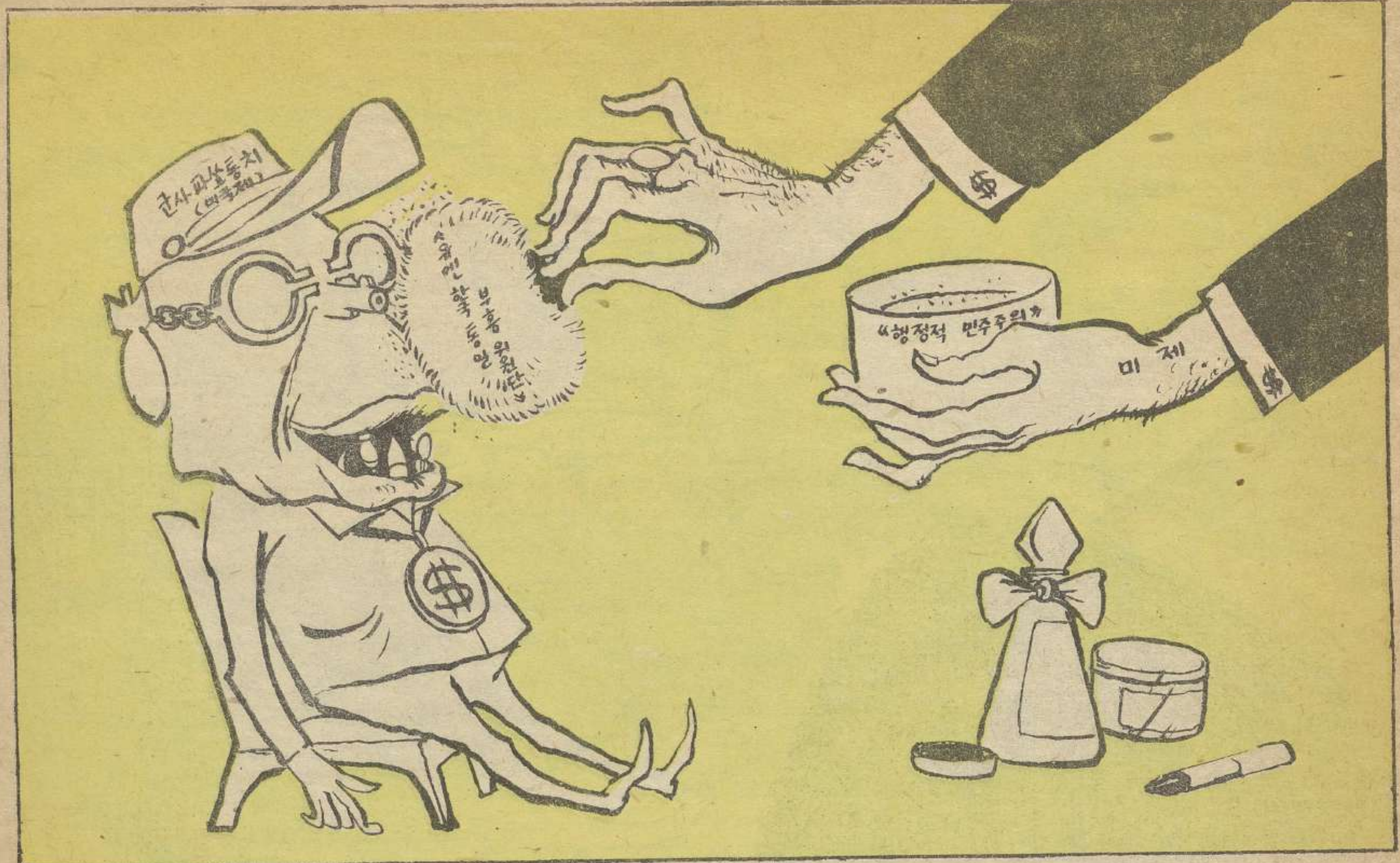


휘황한 전망

《1964년에 우리는 300만 톤의 벼와 20만 톤의 육류,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며 그 해까지 도시와 농촌에 새로 건설되는 문화 주택은 60만 세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오랜 옛날부터 꿈꾸어 오던 념원을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하는 무한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김 일성〉

허 농택 그림

가리울 수 없는 정체



박 승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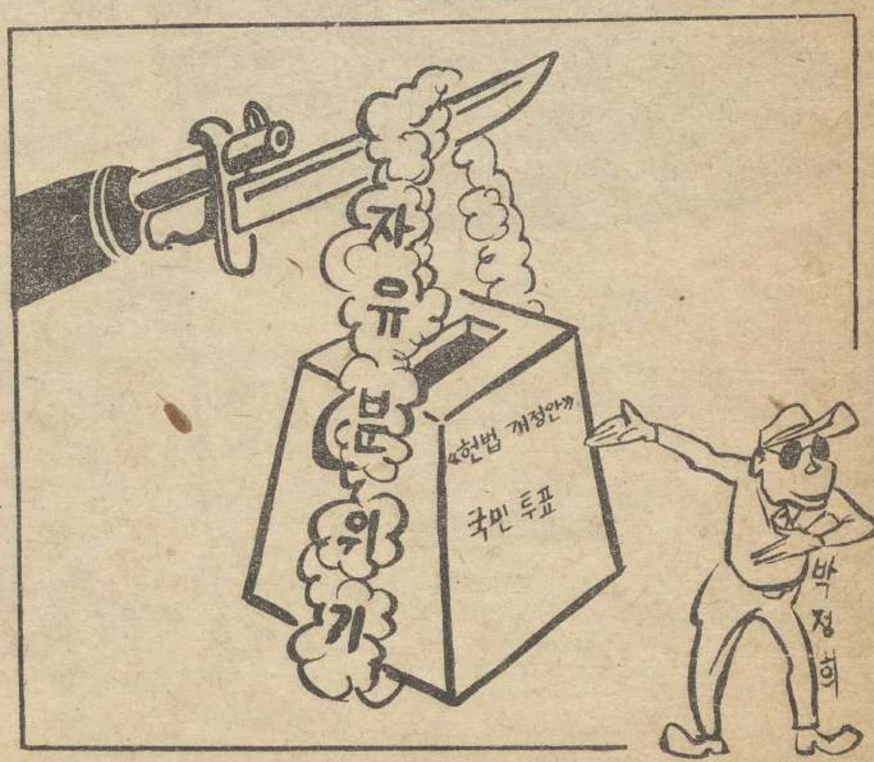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제12 차 《년례 보고》에서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에 수립된 류혈적 군사 테로 통치를 옹폐하며 그를 미화 분식하는데 전력을 다함으로써 미제의 침략 도구이며 고용 사환'군으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온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 보여 주었다.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은 장기 집권과 파쑈 통치의 유지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미제가 조종하고 비준한 소위 《헌법안》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군사 깡패들의 더러운 권세욕을 드러내 놓은 하나의 파쑈 패쪽에 불과하다.

장기 집권용 휴대품

백 인균 그림

총칼의 탄압 밑에



—자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운 분위깁니까…

박 승희 그림

1962년도 남조선 광고개괄

최 정 희

1962년— 이 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자들과 군사 파쑈 도당들이 어떤 짓들을 저질러 놓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그 놈들이 한 짓들이란 년초부터 년말까지 죄다 천인이 공노하고 만인이 다기 규탄할 범죄적 음모 책동, 귀축 같은 만행들로 일관되여 있다. 다른 것은 다 제쳐 놓고 남조선 신문들의 지면을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형형 색색의 영업 광고만 살펴 보더라도 이를 능히 《총화》 지을 수가 있다.

우선 금년 년초에 제일 흔한 것은 《금하 신년》이요, 《축 5개년 계획》이요 하는 컬을 달아 가지고 그 밑에 《개업 예정》 《출자 환영》이라고 대서 특필한 그 무슨 《아세페이트 인견사 공장》이요, 《세계 제일 포경 주식 회사》요, 《대한 개발 화약 합자 상사》요 하는 유령 《공장》의 광고들이다.

- 아, 아니 여기가 그 요란한 《아세페이트 인견사 공장》 입니까?

-네, 뭐 요란하다기 보다두 그저 흔히 있는 반토굴 판자'집입죠. 어서 그 가마니짝을 제치구 들어 오시지요.

- 저, 나는 신문 기자인데요. 그래 《최고 재건 회의》에서 《중점 투자 대상》의 인정은 받았습니까?

- 네, 받긴 받았어요. 그래 지금 이처럼 《팔프》를 한창 《생산》하고 있지요.

- 무… 무어요? 당… 당신이 지금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으로 열심히 꼬고 있는 게 박 정희가 《대량 생산 예정》이라고 대성 광고한 《아세페이트 인견사》라는 게요?! 음— 과연 《멋들어진》 《5개년 계획》이군.

내막을 따져 보면 다 이따위들이다.

그러니 《세계 제일 포경 주식 회사》라는 게 한강 나루터에서 다 썩어져 가는 뽀드 잔해 무더기 우에다 간판을 꽂아 놓고 《군사 정권》의《5개년 계획》을 《해외에 널리 선위》하겠다고 《호통》을 빼고 있는 것이지만 놀랄 것은 없을 것이다. 헌데 신문을 뒤져 나갈수록 《대한 개발 화약 합자 상사》요 뭐요 하는 화약 상사 광고가 점점 더 잦은 것만은 좀 이상한 일이여서 직접 찾아 가 보니 괴쬐쬐한 뒤'골목 가게'방에서 고무 풍선 이야기가 한창이다.

- 고무 풍선과 다이나마이트가 무슨 련관이 있는가요?

- 련관이 있지요. 왜 저 《군사 정권》이 《5개년 계획》을 한다구 삼척에 가서 빵, 울산에 가서 빵하고 다이나마이트만 터뜨리고 돌아 다니고 있는 걸 못 보셨어요?

- 《5개년 계획이 빵, 모래무지가 빵, 깡패 낯짝이 빵》이라구 코흘리개들도 비웃고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 하하하. 그러니 이 고무 풍선처럼 바람 잡아 먹고 맹팡이 배하고 돌아치는 놈들의 허황한 지랄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그 놈이 빵하고 터지고 말 것은 뻔한 사실이니까요. 하하하.

그 다음으로 흔한 광고는 《차입 위탁》이요. 《시나이에도 러지지 않는 솜옷 우대 판매》요 하는 광고들인데 이것은 군사 깡패들이 그 무슨 《반혁명죄》요 《포고령 위반》이요 하면서 《하루 동안에 서울의 한 개 구역 재판소만도 784 명을 판결 이송하는 세계 기록》(공동 통신)을 세운 소위 《즉결 재판》에 의하여 억울하게 고생하게 된 수천 수만의 죄 없는《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브라질—한국 회화 사전을 사십시오》 《리별 기념 사진 활인 봉사》 따위의 광고들은 놈들이 조작한 《이민》 책동의 용서치 못 할 인신 매매 행위에 대한 론죄장과도 같이 남조선 신문들에서 큰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한때 남조선 신문들에서 일체 광고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군사 정권》이 소위《통화 개혁》이 다 죽어 가는 상공업자들을 깡그리 파산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아니, 이거 《한국 일보》를 주는 거요?

- 왜요?

- 광고란에는 온통 《긴찌요》 《다꾸완》 《게다짝》 사라는 소리 뿐이구 《도요 광업 주식 회사》요 《스미또모 재단》이요 하는 왜놈들 광고 뿐이니 말이요.

- 그것 뿐이겠수,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박 정희의 《최고 재건 회의》라는 것도 왜놈 말로 《자, 녹거리 어서 사가는 것 좋다》 하고 광고에 나게 될레니 두구 보시우다. 바지까지 벗어 주면서 지금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있지 않소.

- 개자식들 같으니!

남조선 항간에서 이런 말이 오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범죄적인 《한일 회담》과 《민정 이양》 놀음이 한창 《성황》을 이룸에 따라 남조선 신문 광고란에는 군사 깡패들이 갈아 입을 각종 《민간복》에 대한 판매 광고가 와짝 나기 시작했는데 모두 미국제들이라 박 정희 도당이야말로 미국 상전에 《멸충 보국》하는 졸개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 준다.

그러면 궁국에 가서 이 반역의 무리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

이에 대하여 《한국 일보》 최근 호에 난 다음과 같은 광고는 아주 시사적이다.

《 년말 년시 대특전 !!!
★ 오케스트라 밴드 ★
★ 무상 제공 ★
서울 을지로 장춘 장의사 주인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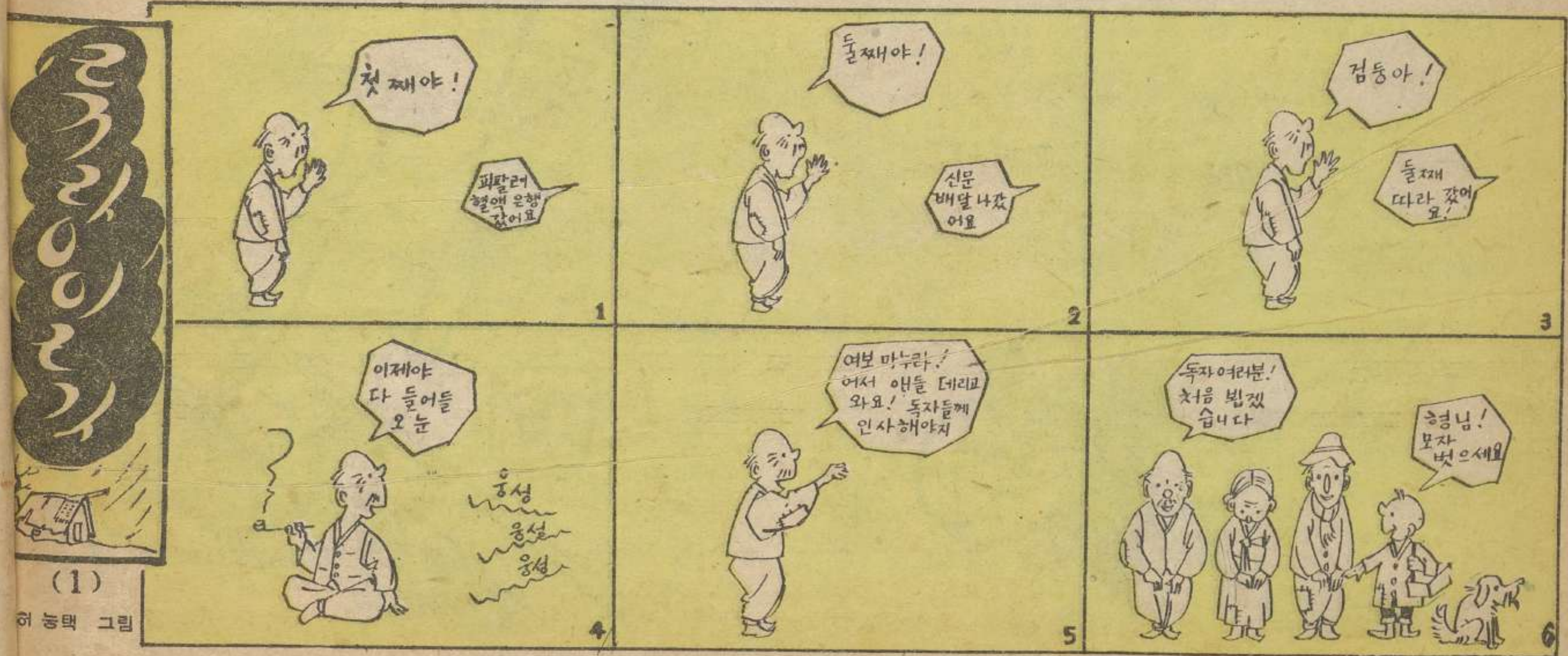
—여보 장춘 장의사요? 1963년도의 장의를 예약하기요.

- 네, 네 고맙습니다. 성함은요?

- 이름은 미제와 《군사 정권》이고…

- 미제와 《군사 정권》?! 하하하 알만합니다. 그런 장의라면 몇기 굶더라도 손발 벗구 나서지요. 그래 오케스트라 밴드는 무엇으로 준비 시킬가요?

- 내 생각에는 당신네 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소. 남북 삼천만 인민이 《평화 통일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를 것이니까…



(1)

허 농택 그림

《대봉사》

박 정희—어서 들어 오세요…

최 영근 그림

《하늘의 별 따기》

춘 지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안내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 붙었다.

광고 소문이 어찌도 굉장하였던지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가까이는 인천, 수원 저 멀리 대구, 목포 등지에서도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 왔다. 수일 간에 《구직》 차로 밀려 온 사람들이 무려 2, 568 명이였는데 모집 인원은 불과 13 명 뿐이였다. 이들 속에는 20 대의 처녀들과 가정 부인들, 륜락 녀성들, 늙은 로파들도 있는가 하면 명색이 학사로 될 대학생들도 학업을 동댕이치고 왔다.

이런 현상은 오직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에서 만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의 비률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200 대 1 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다.

13 명의 인원 《모집》도 절대적인 인원 증가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은 《안내원》들을 이러저러한 구실을 만들어 면직시키고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 데 이것이 군사 파쑈 도당이 《고안》해 낸 이른바 《실업자 구제 대책》의 묘책에서 안출된 것이다.

사태가 이런즉 경제가 모조리 거덜이 난 남조선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조선의 절반 땅을 가로 세로 누비면서 명승 고적 있다는 곳 다 돌아 보고 나서 분통이 치밀어서 다시 한 번 노호한다.

정교하고도 화려한 자태로 하여 세인을 경탄케 하던 경주의 금관이며, 《장서각》에 보관되였던 《리조 실록》이며 국보로 소장되였던 옥새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강도 무리들을 집 안에 두고 재물을 간수하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세상에 미국 놈들과 같은 날강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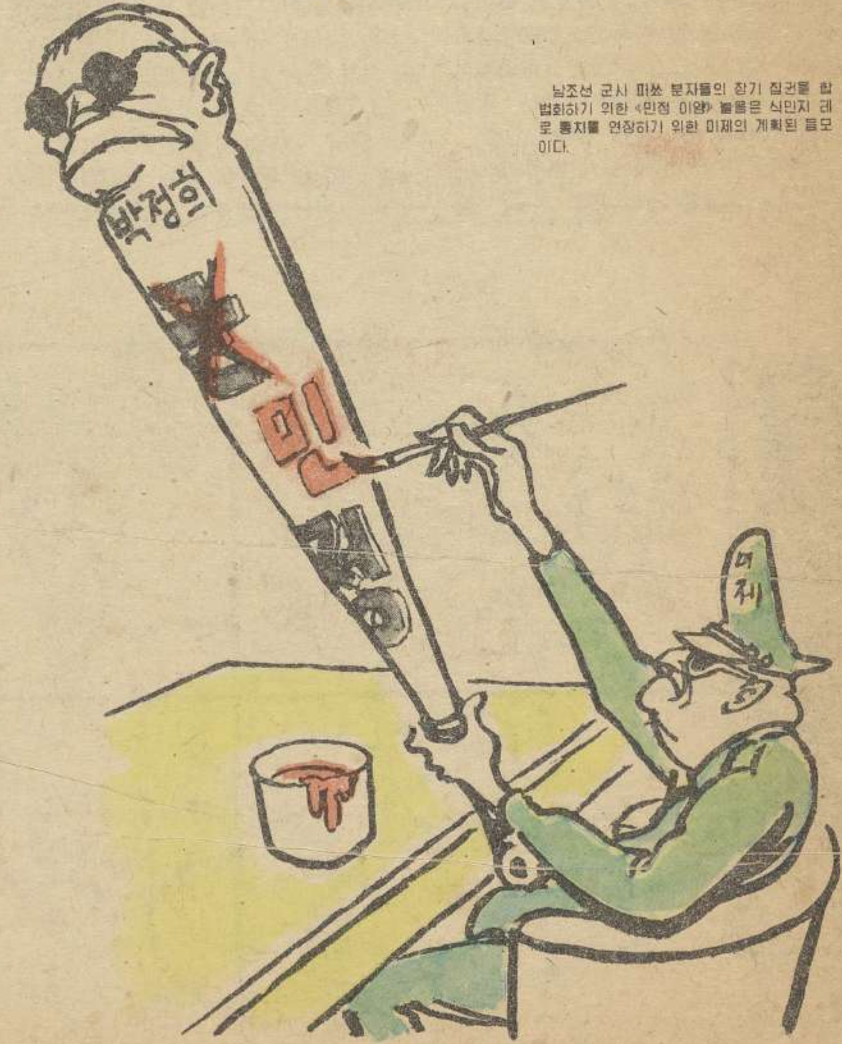
이 도적놈들은 전쟁 기간에 무려 15,700여 점의 유물을 략탈해 가고도 성차지 않아 최근에는 백악관의 사환'군 디. 제이. 헤림이라는 자를 시켜 이사' 짐 속에 신라 시대의 활, 고려 자기 등 54 점에 달하는 문화 유물을 훔쳐 내가려다가 발로가 되였다니 이 얼마나 멀쩡한 날강도들인가!

훔쳐 갈 수 있는 문화재는 깡그리 훔쳐 가고 떠 옮겨 갈 수 없는 것은 몽땅 마사 버리자는 것이 미국 날강도들의 심보인즉 이런 놈들과 어찌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있겠는가!

새해에는 내 목소리를 더욱 높여 미국 승냥이 무리들을 이 땅에서 배겨 내지 못하게 하리라!

변함 없는 통치 기구

남조선 군사 파쑈 분자들의 장기 집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민정 이양》 놀음은 식민지 레로 통치를 연장하기 위한 미제의 계획된 음모이다.



박 승희 그림

주구들의 《축배》

홍 우 빈

박 정희가 단골로 다니는 료리'집 안'방에서는 상전의 호출을 받아 미국과 일본으로 매국 행각을 하고 돌아 온 김 종필을 《환영》하는 술판이 벌어졌다. 빈 술'병들, 지저분한 접시들, 혀 꼬부라진 말'소리들로 보아 판은 한 고비에 이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박 정희가 틀을 차리면서 늘어 놓았다..

《일본에는 선배도 많고 배울 것도 많지, 정치도 배우고 군대 훈련법도 배우고 비밀 경찰 조직도 배우고 또 저렇게 "인기 있는 류행가도 배워야 하거든》.

어느 틈에 안주를 한 입 가득히 쑤셔 넣은 버거는 채 삼키지도 않고 손을 저으면서 떠벌렸다.

《노, 노,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네다. 우리 미국의 기정 방침 대로 빨리빨리 한일 회담 결속짓고 국교 정상화해서 한국의 모든 것 일본에 의탁해야 합네다 》.

《여부가 있습니까》 하고 장내가 일제히 머리를 끄덕였다.

《대사 각하께서도 아시다 싶이 이번에 김 종필은 저의 특사로 먼저 동경에 가서 한국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양보할 의사를 전달했고 워싱톤에 가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다음 다시 일본에 들려 회담한 결과 한일 간의 현안 문제는 매우 순조롭게 풀려 가고 있습니다》.

박 정희가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 놓자 버거의 눈치를 살피고 있던 김 종필은 그의 말을 가로 챘다.

《한일 회담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요, 어업권 문제요, 뭐요 하는 것은 사실 여론을 기만하자는 데 불과한 것이고 저희들로 말하면 미국의 보호와 함께 일본의 보호를 받자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과 일본에 갔을 때 이 문제를 단도 직입적으로 제기하고 도매금으로 해결하라는 미국 어른들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집행했습죠》.

《매우 좋습네다. 그런데 그 문제 금년 내로 왜 해결짓지 못 합네까, 우리 미국 요즘 매우 바쁘게 됐습네다. 일본이 빨리 빨리 한국에 투자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해서 우리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내 립장 매우 매우 곤난합네다》.

버거가 추궁하는 투로 어성을 높이자 《외무부 장관》은 얼른 두 손으로 술'잔을 받쳐 들고 버거에게 권하면서

《대사 각하, 술에 취하신 모양입니다그려, 그거야 벌써 계획이 다 서고 일부는 착착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다 공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걸 것 같아서입죠》 하였다.

이 말에 박 정희가

《우리는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어떤 비난이든지 억누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 완용, 송 병준 같은 이도 국민의 비난이 두려웠다면 한일 합병에 그처럼 나섰겠습니까, 더우기 우리는 일본 근왕파의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다짐하였다.

저으기 누그러진 버거는 《외무부 장관》에게서 받은 술'잔을 높이 들고 소리 쳤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 이것은 바로 극동과 한국에서 우리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네다. 미국에 충실한 우리 한국 친구들의 성공을 축하하여…》.

미제와 일제의 추악한 주구들은 입에서 술이 철철 넘쳐 나도록 술'잔을 따랐다.

김 종필은 밖으로 나와 경비를 더욱 강화하라고 졸개에게 두 번 세 번 당부하고서 다시 좌석에 기여 들었다.

…밖에서는 "한일 회담을 반대한다," "양키와 매국노들을 쓸어 버리라"는 분격에 찬 인민들의 함성이 점점 더 높게, 점점 더 가까이 들려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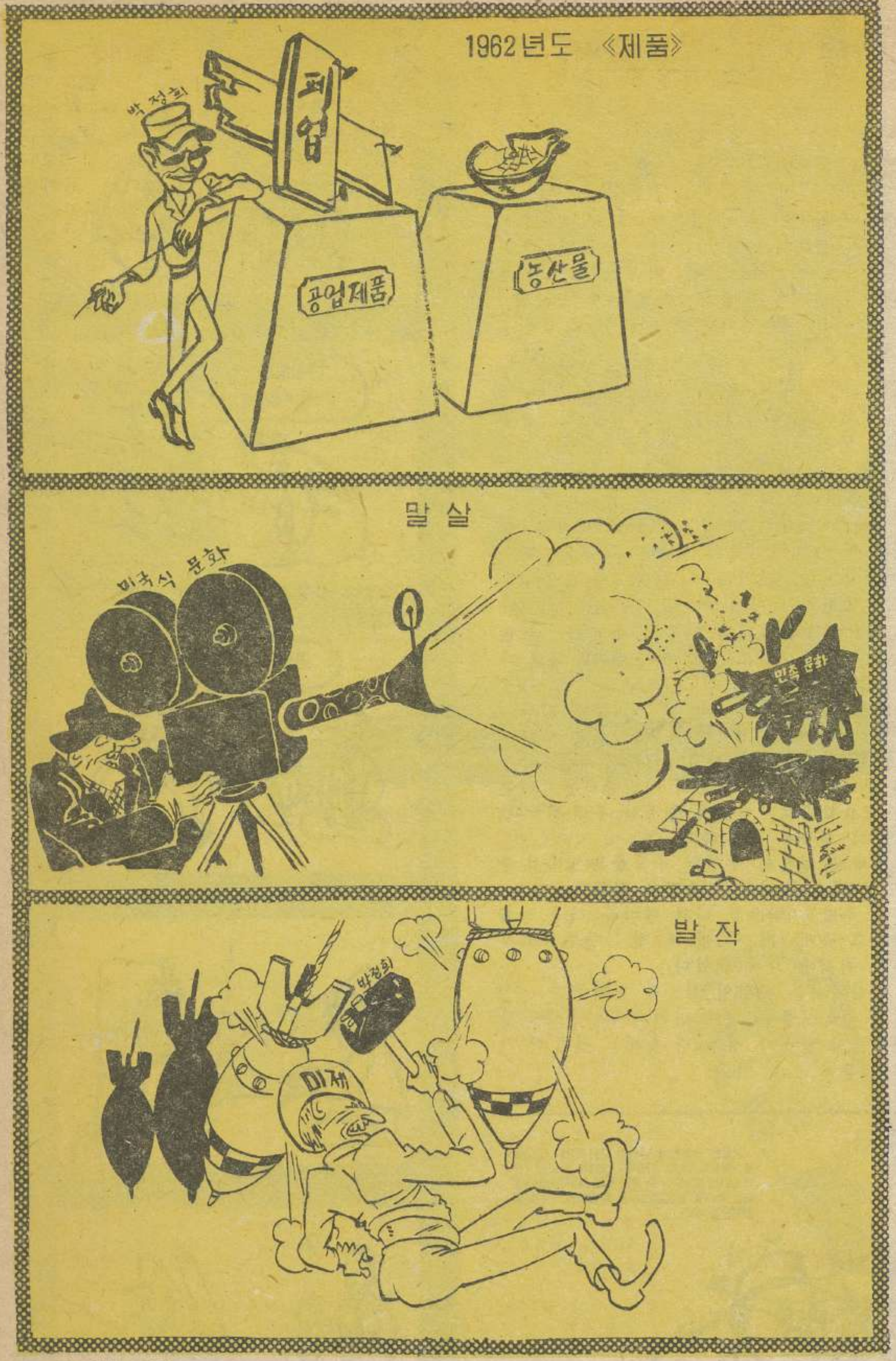
극악한 수탈자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들은 《매상》, 《비료 상환곡》 《대여 량곡》, 《토지 대 가 상환곡》 등 명목으로 320만 석에 달하는 추곡을 농민들로부터 략탈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미제—계속 털어!…

망할 세상 (21)

박 승희 그림



조 명식 그림

서울의 년말 풍경

박 내 숙

요란한 경적을 울리면서 수십 대의 경찰 백차가 종로 네거리를 쏜살 같이 달린다. 계엄령에 년말 비상 경계까지 겹쳤으니 서울의 년말 풍경은 삼엄하기 짝이없다. 그 차에 기마 경찰의 순라도 여너 때보다 잦다. 골목 골목에는 비밀 경찰의 눈초리가 번득인다.

한편 거리에는 문을 닫은 공장에서 쫓겨난 실업자와 람루한 옷차림을 한 류랑 농민들의 대렬로 사태를 이루고 있다.

청계천의 헌데인양 청계천을 중심으로 량옆에 다닥다닥 들어붙은 판자'집과 오막살이 초가'집들에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와 울음 소리만이 소란하게 흘러 나온다.

—어머니, 우리도 떡을 지서 먹읍시다. 설이 오잖아요?

—웅, 웅, 어머니 배 고파 죽겠어요.

이집 저집에서 들려 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차마 듣지 못할 정도로 가엾기 짝이 없다.

청계천 판자'집에 사는 쇠돌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밥 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달래나 못해 바가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쇠돌이 어머니는 찬밥 덩어리라도 얻어 보려고 이집 저집 들려 보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너나 없이 마찬가지였다. 쇠돌이 어머니는 한나절을 헤매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빈 손으로 돌아 왔다.

허기증과 울음에 지친 세 남매는 싸늘한 방안에서 잠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깨면 또 밥 달라고 조를 텐데 무엇을 주나?…)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내 아들 세 살된 쇠돌이의 얼굴을 눈여겨 처다 보았다.

아니, 쇠돌이만은 영영 잠들지 않았는가! 북받쳤던 어머니의 설음은 홍수처럼 터졌다.

—이 저주로운 세상! 자식을 못 먹여서 굶어 죽이다니……

이슬 맺힌 쇠돌이의 어머니 눈에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린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준 미제를 남녘 땅에서 몰아 내지 않고서는 이 생지옥에서 영영 벗어 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웨치면서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땀 한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김 춘

《물 쓰듯 흔하게 쓴다》는 말은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산 좋고 물 맑은 조국 강토의 어디에서나 생활에 필요한 물만은 아무런 구애 없이 유족하게 써 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물 기근 언제 면하나?》 《물 달라》는 아우성 소리 높으니 웬일인가?!

용용히 흘러 내리는 한강을 옆에 두고도 서울 시민들은 마실 물조차 없어 사시 장철 신음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더운 물이나마 끓여 먹으려면 신새벽부터 수도'가에 나가 장사진을 이룬다.

여름엔 말 할 것도 없고 요지음 같이 추운 날에도 땀 한 바가지를 흘려야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먹을 수 있는 형편이다.

미국 강점자들은 18년간 수도 시설 하나 하지 않았다. 40년 전에 시설한 수도관은 보수 한 번 하지 않아 녹 쓸고 파괴되여 원체 부족한 급수량마저 60%가 류실되고 있다. 그러니 서울 장안에 살면서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100만이 넘는다.

서울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조밀하다는 《해방촌》에는 3,600 세대가 단 11 개의 공동 수도에 목을 걸고 있는데 그중 2 개만이 물이 나온다. 그것마저 자주 중단되군 한다.

헌데 돈 맛에 이골이 난 박 정희 도당은 수도 료금을 60%나 더 인상하고도 부족하여 《내핍 생활》을 더 강요하고 있다.

집 없고, 쌀 없고, 돈 없는 데다가 물마저 기근이니 남조선 인민들이 겪는 민생고란 4천년 력사에 있어 못 본 전대미문의 일이다.

군사 깡패들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민생고의 해결》이란 다름아닌 물마저 자유롭게 마실 수 없는 《내핍》을 의미한다.

깡패의 넉두리

오 홍 태

군사 깡패들은 아침 저녁으로 무슨 주간이요, 무슨 월간이요 하면서 전라도 판수 무당이 귀신을 청하듯 피'대를 돋우어 고아 대고 있다.

《자, 케네디 대통령의 추천품이요. 〈국세 미납 일소 강조 기간〉이요. 세금이 올랐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류치장으로 안내하고 두번만 독촉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가장 집물 일체에다 밥사발과 숟가락까지 차압 딱지를 붙일테니 당장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엮다가 다시 총칼을 내 휘두르고는 《자, 다음은 〈생활 합리화 강조 기간〉이요. 일본 사무라이 가족 계획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습을 하고 있으니 할머니도, 부인도 모두다 참가하시오. 내핍과 산아 제한은 군사 정권의 방침입니다. 자, 다음은 〈추계 도로 정리 기간〉이요.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모두다 삽자루를 들고 길 닦기에 나오시오…》.

이런 따위가 군사 깡패식 넉두리라 할 것인데 군사 깡패 지랄이 시작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군사 포고문》이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는 덮어 놓고 검거에다 《군사 재판》 사태가 터져서 일요일도 없이 사형과 엄중처단을 련발했고 또 《법》자도 모르는 주제에 하루에도 수 없이 《법령》을 날조했고 거기다가 양키에 왜놈에다 서독이요, 이태리요 할 것 없이 략탈로 돈 벌이를 하겠다는 침략자들은 앞뒤'문을 다 열어 놓고 《국빈 대우》로 마구 초청해 들이더니 이번에는 단속 주간이요, 조사 월간이요 하는것들을 수 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깡패 역적들의 기본 로선인 략탈과 폭압의 두 가지인 것이다.

《국세 미납 일소 기간》은 깡패 지랄 활동비로 인민들에게서 세금을 략탈해 내자는 수작이고 《생활 합리화 강조 주간》은 인민들에게 절미 운동까지 강요하면서 깡그리 털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 깡패들이 떠드는 절미 운동은 가정에서 쌀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장에 쌀이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추수가 끝난 때로부터 쌀이 떨어져서 돈 주고도 쌀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럴 바에야 농사를 짓지 말고 남조선 천지에서 쌀을 몽땅 없애버리면 아주 성과 있는 절미 운동(切米運動)으로 될것이 아니겠는가.

《추계 방범 기간》은 남조선 땅에 살인 강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겠는데 남조선 인민들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살인 강도는 대체 어느 놈인가?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동치고 나무'군에게 무턱대고 총을 쏘고, 녀인의 머리를 깎고 농민에게 쎄파트를 추겨 대고 또 남조선 땅을 통채로 무력으로 강점하는 따위의 파렴치한 양키 살인 강도단보다 더 흉악한 것이 없다. 또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들어도 트집을 잡아 돈을 털어내고 담배 값을 올려 주머니를 털고 하여간 귀걸이 코걸이로 여기 걸고 저기 걸어서 략탈을 일삼는 군사 깡패들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살인 강도단이 대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 강도 원흉들이 《방범》이요 뭐요 하고 떠드는 것은 경찰과 정보원과 형사, 밀정을 각처에 박아 넣어서 자기들의 살인 강도 행위에 사람들이 불평을 못하도록 해보자는 엉뚱한 수작인 것이다.

《교통 사고 위반자 단속 기간》과 《운전 사고 방지 기간》은 운전수들의 호주머니를 털자는 것이고 《주민 등록 사무 확인 기간》과 《인구 동태 조사 기간》은 인민들을 등록해서 《요 시찰 명부》를 정비하고 정보원을 붙여서 뒤꽁무니를 따르게 해서 덮어 놓고 잡아 가자는 것이다. 두꺼비가 움치는 것은 뛰자는 것이라 했다고 군사 깡패들이 주민 동태를 조사하는 것은 략탈과 폭압을 강화하자는 목적인 것이다.

《가짜 정보원 단속 기간》은 가짜가 많기로 유명한 남조선에서 가짜 형사, 가짜 헌병, 가짜 세리, 가짜 증권과 돈, 가짜 의약품, 가짜 식료품… 하여간 종일 꼽아도 다 못 꼽을 가짜판이다.

사태가 이쯤되고 보면 어느 놈이 가짜고 어느 놈이 진짠지 통 분간할 수 없게 되고 가짜가 진짜를 호령하고 진짜가 가짜 앞에서 녹아나는 희비극도 있는 법이며 진짜가 진짜끼리 가짜가 가짜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법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놈의 세상은 망하는 외곬으로 굴러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남조선에서 어느 게 진짜인가?》 하고 물으면 누구나 대답하기 난처할 것이다. 군사 깡패 정권이란 게 원래 날조된 가짜품이니까 그 무슨 《의장》이요, 《권한 대행》이요 하는 것도 가짜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법령》이요, 《포고》요 하는 것도 가짜니까 이 놈 저 놈 통채로 가짜판인데 《가짜 정보원 단속 기간》은 어느 가짜가 어느 가짜를 녹여 내겠다는 것인가?!

남조선 인민들은 두 가지 주간을 제기하고 있다.

《미제를 몰아 내는 주간》과 《군사 깡패 일소 주간》을.

송시엽 그림

로 철

최근 미국 월가 상인의 손때 묻은 파쑈어용 단체인 《미국 군단》은 내외 각처에다 편지를 보내여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바 있었다.

《1962년—이 해를 보내면서 당신은 우리의 케네디에게 어떤 훌륭한 인사를 보내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무슨 부탁, 의견, 요구를 하고 싶습니까》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였다. 편지마다에는 케네디의 낯짝을 찍은 사진이 한장씩 들어 있었다.

목적인즉은 이런 소위 《여론 조사》의 방법으로 이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놈의 가재미보다 더 납작해진 《위신》을 조금이라도 추켜 세워 보자는 것이였다.

하여튼 회답은 있었다.

이제 그중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들어 보자.

× × ×

☆《우리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미국 문화 중심"을 통해 당신들의 편지를 받고 매우 분개하였소. 당신들은 케네디—이 희세의 해적 두목에게 "훌륭한 인사"를 던져 줄 것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좋소. "큐바는 좋고 양키는 나쁘다!" —이것이 우리가 마련해 둔 가장 훌륭한 인사'말이오

당신들이 친절하게도 케네디의 사신을 아낌 없이 많이 보내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하겠소. 우리는 그것을 과녁 삼아서 큐바 형제를 옹호하고 미제 침략자를 매장하는 사격 훈련에 아주 유용하게 썼던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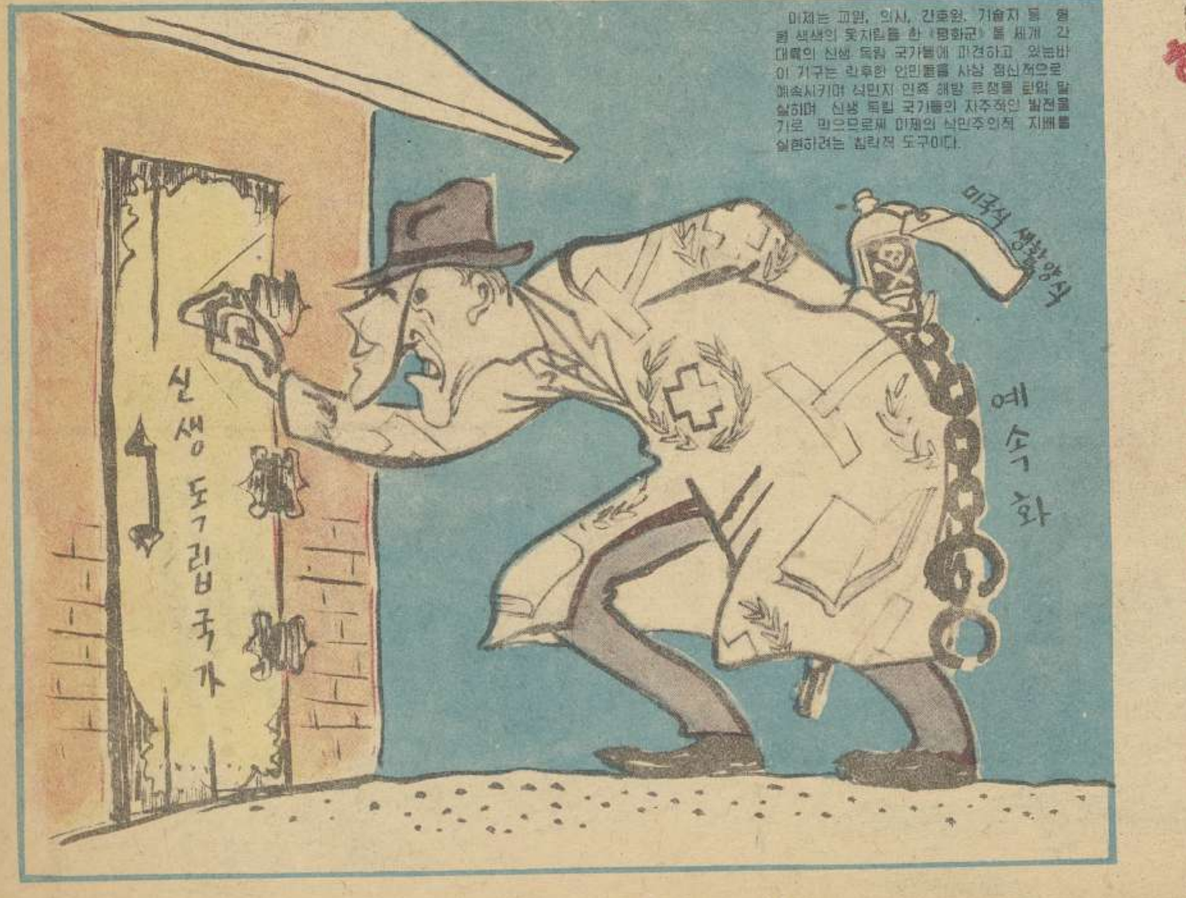
새 해를 맞이 하면서 당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진을 돌려 보내니 케네디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혹은 큐바 침공을 모의하는 〈미국 국가 안전 위원회〉 회의장이나 새해의 〈편안 무사〉함을 축하하는 신년 연회장에다 걸어 달라는 것이오. 사진에는 총알에 뚫린 자리가 많아서 볼모양 없게 되였지만 사실 케네디—호전광, 월가 상인의 수급 사환'군—의 초상이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소.

—혁명적 큐바를 옹호하는 00그루빠로부터—》

☆《1962년을 보내고 1963년 새해를 맞이하게되면서 나는 케네디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니까 아마 당신들은 깜짝 놀랄 것이오. 사실 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 몇놈을 제해 놓고서야 케네디와 같은 천하의 흉악한 악당놈에게 감히 사의를 표할 얼빠진 놈이 어디 있겠소. 나는 남부월남 인민 무장대의 당당한 전사요! 나는 1년 전만 해도 세상 물정에 어둡던 밀림의 한 농민에 지나지 않았소. 그 당시 나는 기술이라고는 호미를 다루는 재간 밖에 없었소. 그러나 지금 나는 최신식 저격 무기를 아주 능란하게 다루면서 미제 침략자와 느고딘디엠 도당놈들을 백발 백중 쏴 눕히고 있소. 어제'날까지 나는 《전략》이니 《전술》이니 하는 것은 말 조차 들어 보지 못했소. 그러나 지금은 케네디가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는 《특수 전쟁 전략》이니 《국부 전쟁 전술》이니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환히 꿰뚫고 그를 산산히 깨뜨려버리는 우리 자신의 전략 전술에도 전통하게 되였소.

참, 기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무기들은 모두 미국놈들에게서 로획한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케네디는 "훌륭한 공급원" 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창고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오. 이런 의미에서 케네디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이오- 남부 월남 사이공에서- 》

변장한 침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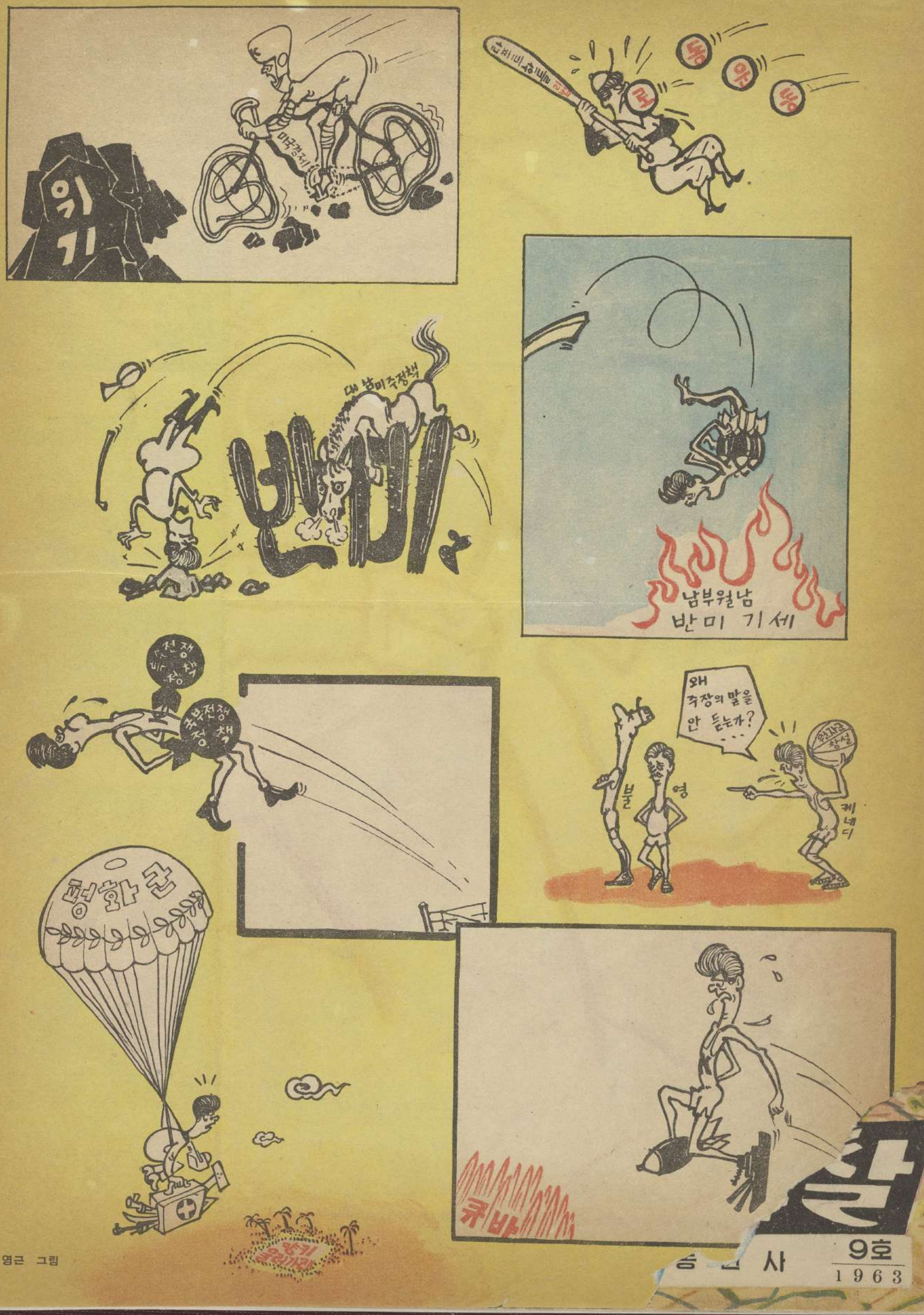
문을 열어 주시오. 당신을 도우려왔소

조 명식 그림

본지 八월호 《만화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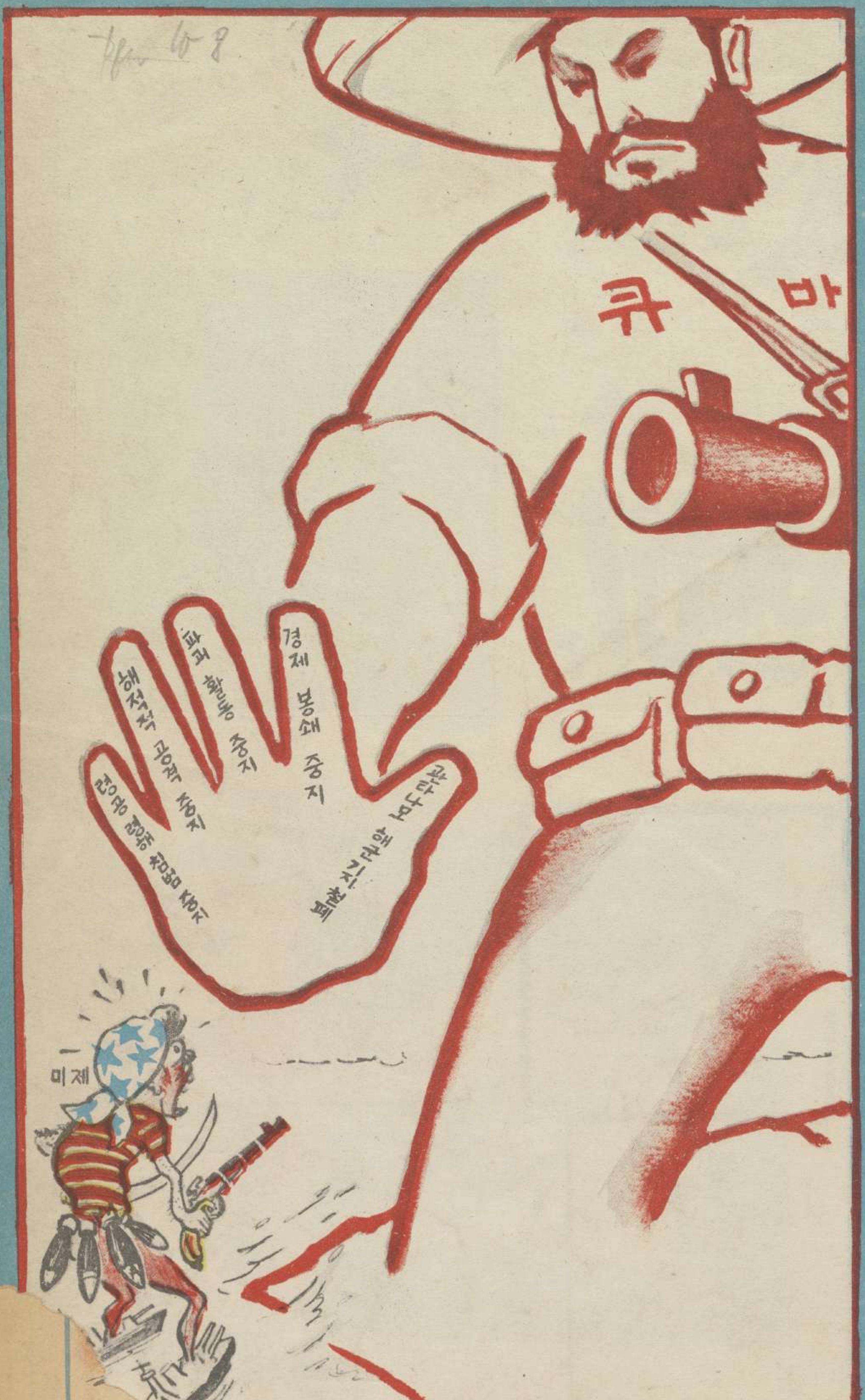
자강도 전천군 중앙 제재 공장 김 욱 그림

케네디의 1962년도 《기록》



최 영근 그림

절대로 안된다!



백 인규 그림

12월 31일

(미국에서)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군중 문화 출판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1962년 12월 20일 발행

ㄱ—211505 값 40 전